

호주 엠마 프란츠 감독 '무형문화재...' 주연 순천 출신 배일동 명창

호남대 교원역량강화 하계 교수 연수

득음·정 담은 다큐영화로 호주를 울리다



"한국의 판소리나 외국의 재즈도 하나의 음악입니다. 뛰어난 자가 색깔이 있지만 그 안에서 서로 조화가 잘됩니다. 서로 장단점을 알고 발전 시킬 수 있는 음악적 교류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순천 출신 소리꾼 배일동(44·사진) 명창이 호주 출신의 재즈 가수 겸 영화감독 엠마 프란츠가 연출해 최근 막을내린 제천국제영화음악제에서 상영된 다큐멘터리 영화 '무형문화재 82호를 찾으라'에 출연했다.

하지만 그는 정작 주인공인 '무형문화재 82호'는 아니다. 호주 출신의 세계적인 음악가인 재즈 드러머 사이먼 바카의 국악 체험기를 담은 이 작품은 지난 1990년 방한 당시 우연히 무형문화재 82호 김석출(1922~2006) 선생의 동래 안별신굿을 보고나서 큰 충격을 받고 한국의 토종음악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다.

배 명창은 한국 무용가 진유림, 국악인 김석출 등과 함께 기(氣), 도(道), 소리, 신명 등 네 개의 파트로 이뤄진 이번 작품에 출연했다. 특히 감독은 배 명창이 4년 동안 소리를 배워가는 과정을 담당한 시선으로 담아냈다.

배 명창은 "처음에 영화를 찍자고 제의가 들어왔을 땐 조금 망설이기도 했다. 재즈 음악을 하는 사람이 과연 우리 고유의 소리를 알고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통 북 연주자이기도 한 원광디지털대 김동원 교수의 권유를 받아 결국 촬영을 허락한 배 명창은 연출진과 함께 산에서 먹고 자는 것은 물론 혼독한 훈련 속에서 목이 트이는 판소리 공부 과정을 활용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재즈와 판소리의 공통성을 발견하기도 하고 자신의 음악적 영역을 한층 넓혀가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순천 출신의 배 명창은 초·중학교 때부터 학교 공부는 뒷전이고 '장자'를 섭렵하며 '진정한 소리'를 찾아나섰던 괴짜였다. 중학교 때부터 순천국악원에서 판소리를 배웠던 그는 동생들 뒤 바라지를 위해 목포해양전문대학을 나와 베사람으로 6년을 보내면서 기관실에서 과도소리와 목소리를 겨누며 목을 터졌다. 명창 성우향·강도근으로부터 사사하며 목을 가다듬던 그는 어느 날 1920년대에 녹음됐던 당시의 명창 송만갑, 이동백, 정정열, 박종기들의 소리에서 기교

가 아닌 '치열하면서도 간결하고 소박함'을 발견했다. 그는 산으로 들어가 '득음' 뒤에도 수련을 해 7년을 채우고 하산했다.

그의 소리는 투박한 외모에 뱃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소리가 마치 고전 속의 장군이나 마당쇠를 연상시킨다. '기교'가 넘치는 '대중적 예인'과는 거리가 멀다. 다큐를 찍기 위해 지리산 달궁계곡의 폭포수를 찾았던 바카와 프란츠는 목숨을 건 예인의 수련 현장에서 눈물을 쏟으며 화면을 담았다.

이 작품을 계기로 배 명창과 김동원 교수는 바카 등 호주의 유명 음악가들과 함께 '다오름'이란 6인조 그룹을 결성했다. 이 그룹은 지난해 3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서 펼쳐진 첫 공연에서 전 좌석 매진이라는 기록으로 현지 음악가들의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다.

배 명창은 "음악을 통해 동서양이 하나 되는 모습에 많은 영감을 얻기도 한다"며 "우리 전통 음악으로 전 세계인과 교류해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은정기자 ejkim@



호남대학교(총장 장병완)는 지난 25일 광주캠퍼스 상하관 세미나실에서 '교원역량강화를 위한 2009학년도 하계 교수연수'를 실시했다.

산업인력공단 태국근로자 노무 상담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정연수)는 최근 본부 강당에서 주한 태국대사관과 공동으로 태국근로자 노무상담 행사를 진행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5·18 등 사회현상 비판적 사고 담아

박진동 전 광주일보 상임고문 칼럼집 내



50여 년을 언론계에 몸담아온 박진동(84·사진) 전 광주일보 상임고문이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쓴 칼럼과 평소 써온 수필을 모은 칼럼집과 수필집을 동시에 출간했다.

박 전 고문은 '자유언론인의 거칠없는 손소리'라는 부제를 단 칼럼집 '광주의 손소리'(한림펴낸)에서 5·18광주민중항쟁, 국회의원선거 등 언론으로서 본 굵직굵직한 사건과 사회현상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담백한 문체로 풀어쓰고 있다.

제2부 '오바마의 명연설', 3부 '동태후와 서태후' 등에서는 팔순을 넘긴 지식인이 전하는 인생과 삶의 교훈을 읽을 수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동구사랑 스포츠클럽 창단

스포츠 교류를 통해 광주 동구 주민의 건강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동구 사랑 스포츠클럽'이 창단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동구사랑 스포츠클럽(회장·김영길



성형외과 원장)은 26일 오후 동구문화센터에서 유태명 동구청장과 회원, 주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단식 <사진>을 가졌다.

동구문화센터에 사무국을 둔 동구사랑 스포츠클럽은 축구 클럽(65명), 수영 클럽(60명), 배드민턴 클럽(80명), 게이트볼 클럽(25명) 등으로 구성돼 있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순천 플로스메디타운

서강석 원장 장학금 전달



순천시 조례동에 위치한 플로스메디타운 서강석 원장이 최근 순천 전자고교 24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1천 200만원을 전달했다.

서 원장은 올해 병원을 연 뒤 순천 지역의 인재육성과 교육발전을 위해 가정형편이 어렵고 타의 모범이 되며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추천받아 장학금을 지급하게 됐다. 이를 학생들에게 각 50만원씩의 장학금이 주어진다.

/동부취재본부=김은정기자 ejkim@

농협광주본부 사랑의 헌혈행사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정종순)는 최근 본부 회의실에서 대한적십자 광주·전남혈액원의 도움을 받아 헌혈행사를 가졌다. 이날 헌혈은 '풀러스 원 사랑나누기 운동'의 일환으로 펼쳐졌으며, 임직원 100여명이 참여했다.

(농협광주본부 제공)

정재훈 동아병원장 전남대서 박사학위



논문은 실제 의료 현장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한 데이터와 경영 성과 자료 등을 종체적으로 분석, 고객 만족, 경영성과 등을 종합해 병원경영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눈길을 끌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

진도 출신 김영산씨



고졸 출신의 서울메트로 역무원 김영산(42)씨가 KBS 1TV '퀴즈 대한민국'의 제43대 퀴즈영웅이 됐다고 KBS가 26일 밝혔다. 제작진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진행된 이 프로그램의 패자부활전 녹화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녹화에는 지난 3년간 이 프로그램의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했지만 우승을 놓친 180여 명의 도전자 중 실력을 가려진 6명이 대결을 펼쳤다.

그는 2006년 6월 '퀴즈 대한민국'에 첫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마지막 한 문

제를 날겨두고 영웅 도전에 실패했으며, 2007년 5월에는 KBS 1TV '우리말 겨루기'에도 도전했지만 역시 마지막 한 문제를 넘겨두고 달인 등극에 실패했다. 김씨는 "매년 전남 진도에서 배추 농사를 지어 복지시설에 무료로 배추를 대주던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더 이상 봉사를 할 수 없어 아버지께 용기를 드리고 싶어 재도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방송은 30일 오전 10시. /연합뉴스

미 케네디 상원의원 별세



뇌종양으로 투병 중이던 미국의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 25일 77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케네디가 (家)는 26일 짧은

성명을 통해 "우리가 깊이 사랑했던 남편이자 아버지, 할아버지, 형제이기도 했던 케네디 의원이 매사추세츠주 하이아尼斯 포트에 위치한 저택에서 25일 저녁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 서구의회 의원 급식봉사 활동



광주 서구의회 장학성·강은미·류정수 의원은 26일 화정동 서구 노인복지회관 사랑의 식당에서 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노인들을 위로했다.

(광주 서구의회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동창·동문회

알림

▲북성중 제27회 동창회(회장 윤영천) 월례회=27일(목) 오후 7시 상무지구 목연. 062-374-9252.

▲광주동초교 42회 동창회=29일(토) 오후 1시 총장로 금강 해물당. 062-225-5289.

▲목과고등학교 32회 동창회(회장 최규필) 월례회=29일(토) 오후 7시 광성 입면 삼화농원. 010-3203-4392.

▲광주상고 12회 동창회(회장 이재술) 8월 하계모임=30일(일) 낮 12시30분 중심사 버스점점 전북 식당. 062-227-1449, 011-9440-0300.

▲강진 일구삼삼회(회장 윤봉현) 9월 정기총회=9월 1일(화) 오후 6시30분 신광식당. 010-8629-5410.

함). 062-365-8228.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 보호소 무료 상담=보호가 필요한 아동 일시보호 상담. 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062-222-1095.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 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 062-363-2240.

▲홀티아동복지회 광주아동상담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혼모 시설 입소 안내. 062-227-8877.

모집

▲전통문화예술단 굴림 무진농악단=은빛국악단 회원 및 강습생 모집=풍물반(수·오후 3시), 난타반(목·오후 3시), 장구초보반(화·오후 7시 30분), 종금반(월·저녁 7시 30분). 062-523-0474, 010-2658-0876.

▲북구 한울복지재단 가곡 노래교실 '참고온소리단' 회원 모집=55세 이상 가곡을 사랑하는 남녀. 010-227-4000.

9886-9775.

▲장애인 체육 동호인 모집=광주장애인체육회 방문 및 홈페이지(gjsad.or.kr), 전화 상담 후 신청. 062-384-5544.

▲놀이페 '신민' 단원 모집=연극·탈춤·풍물·소리 등에 관심 있는

젊은 남녀. 062-527-7295.

▲회원 효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 목욕 신청자 모집=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는 환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문의 061-373-8865.

▲광주 아버지합창단원 모집=광주 주거주 합창 좋아하시는 남성,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연습. 011-602-7354.

부 음

▲김기환씨 별세 만찬·동찬·찬·

정원·준원·선숙씨 부친상=발인 28

일(금) 학동 금호장례식장 201호.

062-227-4000.

▲송준덕씨 별세 홍석규·덕규·삼

숙씨 모친상=발인 27일(목) 학동 금

호장례식장 101호. 062-227-4000.

▲김효신씨 별세 김형원(전 한전 지점장)·형균(국세청 대변인)·형

은·형자·형민씨 모친상 안희옥(전 YWCA사무총장)·이정임씨 시모상 최복규(전 기업은행지점장)·김오현

(전 우리은행지점장)·송